

# 지역 우수 中企인 9명 선정

광주일보사·지역 중기청 선정…장애인·청년창업 기업 등 5개 부문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들은 2월 '2012년 상반기 우수 중소기업인' 9명을 선정, 시상했다.

수상자는 우수 중소기업 부문은 ▲(주)천일 최봉규 대표 ▲(주)달마전자 박병운 대표 ▲(주)다인시스템 정순임 대표 ▲(주)무등기업 박형규 대표 ▲동의나라(주) 강기운 대표 등이다. 또 장애인기업 부문은 ▲(주)비엔 애드 진성용 대표, 여성기업엔 ▲협신 디자인기획(주) 정행숙 대표, 청년창업기업엔 ▲은우산업 최희선 대표, 지원유공자엔 ▲박경우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실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이날 오전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서 열렸다.

(주)천일은 21년 동안 식품·산업용 포장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품질 고급화 전략으로 포장지 제조업체 전문 브랜드로 입지를 다졌다. 풀무원, CJ, 대상 등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전국적인 공급망까지 갖춰 연매출만 96억 원이 넘는다.

(주)달마자는 반도체회로기판(PCB) 검사 전문기업으로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33.7%, 고용증가율은 10.0% 등 꾸준한 성장을 이

- 천일-포장재 고급화로 연매출 96억
- 달마전자-3년간 연평균 매출 34%씩 증가
- 무등기업-안전벨트로 기아차 제1 협력사
- 동의나라-뽕나무 소재 화장품·세제 특허
- 다인시스템-스트랩 마스터 개발…中 진출

루고 있다.

광주시로부터 매출성장과 고용창출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한 예비스타 입주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성장잠재력, 고용창출, 재무건전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무등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다. 1985년부터 프랑스 푸조그룹 계열사인 AOP사와 안전벨트 등 자동차 내장제품 제조 기술 혁신을 맹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로부터 고용우수기업인증을 받은 등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동의나라(주)는 뽕나무를 이용해 음료 등 식품류를 비롯해 화장품, 세제 등을 개발했다. 주변의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개발로 가공 및 제품 개발에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기술개발 과정에서 다수의 특허(등록 3건, 출원 4건)와 상표(등록 3건, 출원 1건)도 확보했다.



2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도 상반기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박경우 실장, (주)무등기업 박형규 대표이사, (주)비엔 애드 진성용 대표이사, (주)달마전자 박병운 대표이사, (주)다인시스템 정순임 대표이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이의준 청장,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 은우산업 최희선 대표, 협신디자인기획(주) 정행숙 대표, 동의나라(주) 강기운 대표이사, (주)천일 최봉규 대표이사.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대형 은행 '자본적립 비율' 15.5%로

### 특정 은행 부실 여파 최소화

앞으로 국내 주요은행들은 금융안정을 위해 최저 8% 수준인 '자기자본적립비율'을 많으면 15.5%까지 높여야 한다.

이는 특정 은행의 부실·부도가 금융위기로 확산하는 등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2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최근 발표한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 규제체계 권고안'에 맞춰 구체적인 규제방향과 규제대상은행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CBS는 2011년 11월 주요 20개국(G20)의 승인을 거쳐 '시스템적 중요 글로벌은행'(G-SIB) 29곳을 선정한 뒤 추가본 규제 등 감독강화 방안을 담은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6월말 G-SIB에는 속하지 않지만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국가별로 중요한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D-SIB 규제 권고안을 발표, 국가별로 은행과 규제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물가 떨어졌다는 “글쎄요”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35개월만에 최저

농산물·집세 상승률 높아 서민 체감은 낮아

지난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3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집세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았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광주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201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상승했다.

이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9년 7월(1.3%) 이후 35개월만에 가장은 낮은 수치다.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같은 달 대비 1.2% 상승했다.

물가 수지는 안정됐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이른 더위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4% 등 공업제품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7%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0.5%나 오르면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 캐주얼 의류 매장에 선보인 올 여름 유행 할 바캉스 패션들이 여성 고객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 ‘돈 가뭄’ 증시

6월 일평균 거래 4조538억원…사상 최저

증권시장에 돈이 말랐다.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월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538억원으로 시가총액의 0.38%다.

이는 거래대금이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2000년 이후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

금 비중의 평균은 0.71%, 표준편차는 0.22%였다.

최근의 거래대금 급감은 평균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악화되고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중은 작년 말 0.4%대를 찍더니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는 관망심리가 커지면서 지난달 급기야 사상 최저치인 0.3%대로 내려앉았다.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3월 다시 5조원대로 떨어지면서 증권사의 손익분기점인 6조5000억원을 4개 월째 밀들고 있다.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증권업계에서는 적자경영이 일상화됐다. 증권사는 수익구조 상 소매영업 기반의 위탁수수료가 4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줄면 수익에 직격탄을 맞기 때 문이다.

**국외 초청 브랜드 공연 DANCE**  
**김영순무용단 [Here Now So Long + 숫]**  
Here Now So Long + 숫SSOOT  
6. 23(화)~6. 24(수) 18:00 - 빛고을시민문화관

**타지역 브랜드 공연 MULTIDISCIPLINARY**  
**중앙국악관현악단 [춤추는 관현악]**  
Dancing Orchestra  
6. 27(수) 20:00 -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지역 브랜드 공연 MULTIDISCIPLINARY**  
**티악그룹 “얼마” [인(人)수(水)화(火)풍(風)]**  
Human, Water, Fire, Wind  
6. 30(토)~7. 1(일) 18:00 -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지역 브랜드 공연 THEATER**  
**푸른연극마을 [사생의]**  
Sapveong Station  
7. 3(화)~7. 4(수) 20:00 - 빛고을시민문화관

**국립예술단 브랜드 공연 DANCE**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Swan Lake  
7. 6(금) 20:00 ~ 7. 7(토) 18:00 - 광주문화예술회관

**타지역 브랜드 공연 DANCE**  
**인온미 무용단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  
Symphoca Princess Bari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작품  
7. 10(화)~7. 11(수) 20:00 - 빛고을시민문화관

**Brand Performance Festival**

**브랜드 공연축제**  
2012. 6. 23 ~ 7. 21

<http://festivalo.kr>

Ticket : 인터파크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